

한 국 어 판

True Peace

Vol. 36

TRUE PARENTS' MESSAGE AND NEWS

天一國 11年

天曆 6월

2023년 양력 7월



권두언

참부모님 말씀

HJ NEWS

현장소식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의 의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조국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초청 국가복귀를 위한 3·4지구 공직자 결의 및 파송식 하나님의 조국과 천일국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한국지도자 효정특별수련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세계순회(신유럽)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의 의미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존경하는 신한국 지도자 그리고 축복가정 여러분!

참부모님께서는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봉헌(양 5.7) 이후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주권이 실제적으로 치리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천정궁 세계본부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과 UPF로, 총재비서실은 1실과 2실로 구분하여 정립해 주셨습니다. 기존 지구와 대교구 체제는 폐지하고 대교회 체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통해 축복가정이 지녀야 할 시대인식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의 시대는 실제 모심의 시대라는 인식입니다. 참어머님께서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식을 통해 천일국 시대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무형의 하늘부모님께서 지상에서 참부모와 역사하는 시대를 맞아 참부모가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체험하면서 느끼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세계본부는 신령과 진리로 천심원과 하나 되어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을 세상에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지금의 때는 본질을 추구하는 시대라는 인식입니다. 참어머님께서 HJ크루즈 승선식(양 5.18)에서 “창조주의 본질은 하늘부모님이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일국을 실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축복가정들은 참부모되시는 하늘부모님의 참사랑, 위하는 삶을 실천하며 참된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해야 합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산하의 UPF를 포함한 전체 조직은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가 한 가족의 기치가 되는 평화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꿈인 참부모님의 가르침, 참부모님의 전 생애를 증거해야 합니다.

셋째, 지금의 때는 효정을 넘어 충절의 시대라는 인식입니다. 참어머님께서 2013년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하시며 천일국의 실제적 안착을 위한 비전 2020을 선포하셨습니다. 3년간의 시묘정성을 통해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효정을 인류 앞에 전수해 주셨으며, 2023년에는 하늘섭리의 완성, 인류역사의 완성인 천원궁 천일성전을 승리 봉헌하심으로써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천상과 지상에 실제로 모시게 되는 때를 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인류가 하늘부모님에 대한 효와 사랑을 넘어 충절의 표상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섭리를 늦출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태초에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하나의 세계,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는 길의 초석은 하나 된 기반 위에 남북통일과 세계통일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넷째, 지금의 때는 신령과 진리를 통해 전도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시대라는 인식입니다. 참어머님께서 태초의 하늘부모님의 꿈,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 분단 없는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건설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계십니다. 참어머님께서 “이 나라 3천만 백성이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남북은 반드시 통일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참어머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축복가정들이 하나되고 휴면 식구와 교회를 등진 2세·3세를 되찾아 그 환경권을 넓혀 실질적인 국가복귀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늘부모님의 섭리에는 결코 중단이 없습니다.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천일국 시대에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소명은 한 사람의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력 보다는 가정연합 축복가정 전체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이제는 우리 전체가 하나가 되어 그 소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절체절명의 때, 축복가정과 목회자가 하나가 되고, 교회와 기관이 하나되고, 가정연합과 UPF가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5천만을 향해 전도하고 국가복귀 남북통일 그 한 목표를 향해 전진 또 전진합니다.

우리 모두가 집단지성과 효율적인 조직의 힘으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실제적으로 모시고 이 시대의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여 승리적인 보고를 봉헌할 수 있는 천일국의 효자 충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권두언

- 02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의 의미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HJ NEWS

- 08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한국지도자 효정특별수련
- 12 하늘부모님성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및
UPF 주요 기관장 취임식
- 14 모림절 63주년 기념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집회
- 16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초청
국가복귀를 위한 1·2지구 공직자 결의
및 파송식
- 18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초청
국가복귀를 위한 3·4지구 공직자 결의
및 파송식
- 20 참부모님 특별화보
- 22 HJ모나용평 창립 50주년 기념식
- 26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천일국 지도자 특별집회
- 29 HJ크루즈&HJ마리나 승선식

참부모님 말씀

- 04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조국
천성경 제12편 천일국
제1장 하나님 조국과 천일국
- 06 하나님의 조국과 천일국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초청
국가복귀를 위한 3·4지구 공직자
결의 및 파송식



현장소식

- 30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세계순회(신유럽)
- 34 하늘부모님성회
제61회 참만물의 날 경배식
- 35 천원궁 천승교회 공동 당회장 취임식 및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9주년
기념예배
- 37 신미국 대륙회장 이·취임식
- 38 남양주대교회 승격 및
용정식 대교회장 취임예배
- 39 피스로드 2023 통일대장정
- 42 강원도 정선 항공계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조국

천성경 제12편 천일국 제1장 하나님 조국과 천일국

새로 맞이한 새천년은 6천년간의 구원섭리가 완성되고 창조이상을 중심한 본연의 하늘나라가 건설되는 때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약의 시대를 말합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으며 애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을 값없이 나누어 주는 조건 없는 참사랑의 시대를 말합니다. 영계와 지상이 하나로 통하여 천상과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직접

주관이 복귀된 장자권·부모권·왕권을 통하여 전체·전반·전권·전능의 새 시대가 열리는 때입니다.(315-218, 2000 02 02)

지구성은 인류의 고향이요, 영계는 인류가 완성하여 도달해야 할 영원한 조국을 의미합니다.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나라’를 넘어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천주’로서 하늘부모를 중심한 지구성 대가족주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인 부자지연을 마음에 새기어 천

주, 즉 영계와 지상을 우리의 고향과 조국으로 창건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315-219, 2000 02 02)

예수님도 참하나님의 조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오셨고, 선지선열들도 그 조국 건설의 역군들이었습니다. 천국을 창건하기 위하여 하늘땅이 공인하는 남성과 여성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번식하고 종족·민족·국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기준으로 탕감하고 접붙여서 이 세계를 하나님 주관의 조국으로



창건해야 됩니다. 선지선열들이 이것을 바라고 나왔지만, 소망하는 개인·가정·종족·민족·국가·세계로 이어지는 지상 천국을 건설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가던 길을 버리고 가야 합니다.(015-278, 1965 10 30)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목적을 중심삼고 하나의 방향만으로 가기 때문에 광명한 모습으로, 명랑한 모습으로 힘차게 뻗어 나가야 합니다. 아무리 여기에 먹구름 같은 것으로 막혀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구름에 가리게 되면 그림자가 생기지만, 하늘나라의 빛은 이 구름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빛과 열을 갖고 거기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은 열에 뜨거워져서 타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없어지게 됩니다.(086-304, 1976 04 11)

오늘날 하늘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은

사탄세계에 파송받은 밀사입니다. 개개인에 있어서 크고 작고, 넓고 좁고, 높고 낮은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각자가 처해 있는 생활 자체는 밀사의 생활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생사의 위협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생명 문제가 좌우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지탱시킬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조국을 찾겠다는 관념이 그 환경보다 몇 백 배 강하지 않고서는 밀사의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조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조국의 원한을 풀었을 때에 온 만민이 기뻐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건하여 조국광복의 한 날을 맞는 그때에 자기 공로가 드러날 것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입장을 무시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앞서지 않고는 밀사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국광복을 위한 소망이 현실의 소망보다 천배 만배 강한 마음이 되어야만, 오늘의 생명을 바꿔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밀사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029-040, 1970 02 16)

제2의 조국광복을 위해 삼팔선을 타파하고 만민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아시아의 새로운 결실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민족의 역사적 처참사를 딛고 새로운 문화를 창건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약한 손을 서로서로 맞잡고 약한 몸을 움직여 하늘을 향하여 쌍수를 들어 맹세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은 자중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국가를 사랑해야 되겠고 세계를 사랑해야 되겠기 때문에 환경을 개척해야 됩니다. (036-201, 1970 11 29)

✎



하나님의 조국과 천일국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초청 국가복귀를 위한 3·4지구 공직자 결의 및 파송식
천일국 11년 천력 4월 10일 (2023. 5. 29) | 여수 디오션

창조주 되시는 하늘부모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시조가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성장기간을 주시어 완성의 한날을 기다려 나오셨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는 인간에게 따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지만 인간 시조가 되어야 할 남자와 여자는 그 계명을 지키기 못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조주와는 관계없는 타락한 세계가 오늘날의 세계입니다. 6천년이라는 기

나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한 순간도 평화로운 세계는 꿈꿀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전쟁과 갈등, 질병, 예기치 못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인류 역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하늘부모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시작과 끝이 같으십니다.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힘든 탕감복귀 구원섭리 역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택하시어 구원섭리 역사를 하시는 이유는 본래의 하늘이 꿈꾸셨던, 하늘이 직접 대할 수 있는 혈통을 복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시간을 거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늘이 대할 수 있는 혈통을 찾으셨습니다. 그로부터 개인, 종족, 민족, 국가 형태로 나아갈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4천년이라는 시간을 거치시어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정작 메시아를 보내 주셨는데 그를 탄생시킨 마리아, 사가리아 가정, 유대교,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 했습니다.

하늘은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하셨습니다. 타락한 세계, 타락과는 관계없는 하늘이 탄생시켜야만 하는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해 하늘은 많은 준비를 해 나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독생녀를 탄생시키기 위한 나라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하늘은 한민족을 택하여 길러 나오셨습니다.

마침내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했습니다. 섭리적으로 400년만입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종결됨으로 말미암아 한국은 남과 북으로, 민주와 공산으로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늘이 기다리던 참부모 자리입니다. 참부모 자리. 다시 말해서 재림메시아의 사명은 하늘이 택해 세운 독생녀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나를 독생녀로 탄생시키고 축복한 이상 ‘반드시 내 당대에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리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더 이상 하늘은 기다릴 수 없으시어 나에게 기원절을 열라 하였고, 천일국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선포뿐만이 아니라 인류에게 보여줘야 하겠기에 7개국과 7개 종단, 대륙을 복귀를 했다는 조건을 세워 천일국 안착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기대 위에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원궁 천일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창조주 하늘부모님의 본질, 소원, 꿈을 말하고 이루어 드리는 분은 오직 참부모뿐입니다.

6천년의 인류 역사를 놓고 하늘부모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기다리고 참아 나오셨나를 알아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인류를 품고자 하시는 부모의 심정 앞에, 하늘부모님 앞에 참부모님 앞에 여러분 모두는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축복가정으로서의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입니다. 국가복귀를 못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늘부모님의 조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통일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참부모 독생녀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해결이 돼야 할 가장 긴급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부모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참부모를 마음껏 자랑하는 효자, 효녀, 충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한국지도자 효정특별수련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한국 지도자 효정특별수련(이하 효정특별수련)이 천일국 11년 천력 4월 20일부터 23일 까지(양 6.8~11)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신한국 대교회장, 목회자 부부, 대교회 공직자, 천보가정교회장, 섭리기관 공직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신령과 진리로 전도 승리! 신통일한국 국가복귀 승리!’를 주제로 한 이번 효정특별수련은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특별집회를 비롯하여 취임식, 천보찬양역사, 천심원 특별기도회, 천원궁 천일성전 순례, 신한국 전도출정예배 등 주요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목회자 부부는 국가복귀 승리에 사활을 걸 것을 굳게 결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한국지도자 효정특별수련, 1일차

하늘부모님성회 가정연합·UPF 주요 기관장 취임식

효정특별수련 첫날 공식행사로 ‘하늘부모님성회 가정연합·UPF 주요 기관장 취임식’이 천일국 11년 4월 20일(양 6.8) HJ천주천보수련원 대성전에서 거행됐다.

이날 취임식은 이기식 신한국 부협회장 사회로 개회선언, 보고기도(이기성 천심원장), 격려사(문연아 총재비서실 제1비서실장, 정원주 총재비서실 제2비서실장), 취임사(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양창식 UPF 세계의장,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 억만세(박노희 신통일한국국민연합 원로회장),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기도를 통해 이기성 천심원장은 “언제나 참부모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고, 새롭게 세워진 중심인물과 하나가 되어 비전 2025 승리를 위한 출발의 기대가 온전히 하늘부모님과 독생녀 참어머님을 모시고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간구했다.

격려사에 나선 문연아 제1비서실장과 정원주 제2비서실장은 천지인참부모님의 정성과 사랑 속에서 취임하는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과 양창식 UPF 세계의장,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의 취임을 축하했고, 효정특별수련이 기쁨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 해주신 참어머님께 깊은 감사를 올렸다.

취임사를 통해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과 양창식 UPF 세계의장,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은 2025년까지 국가복귀의 기대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참어머님의 천명을 받아 향후 목회자 및 공직자, 식구들과 하나되어 전력투구 실천궁행하여 실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새 지도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후 이기성 천심원장의 천심원 특강과 효정특별수련의 공식일정으로 HJ천주천보수련원 천보찬양역사와 신통일한국을 위한 천심원 특별철야정성이 천심원에서 은혜롭게 진행됐다.



신한국지도자 효정특별수련, 2일차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한국지도자 특별집회

효정특별수련 둘째 날(양 6. 9) ‘천지인참부모님 주관 신한국지도자 특별집회’는 독생녀 실체성령 참어머님을 모시고 거행됐다.

이날 행사는 참부모님 말씀 영상시청(3·4지구 임지 파송식 참부모님 말씀), 찬양, 참부모님 말씀, 섭리 기관별 전략발표(세계본부, UPF, 신한국협회),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참어머님께서는 이날 말씀에 앞서 “천일국의 주인되시는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봉헌해 드린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하문하신 후, “하늘부모님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부모님을 알리고 축복해 주는 참부모가 주인임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섭리적 방향을 짚어주셨다. 나아가 참어머님께서는 “내가 80세이니 90세가 되기 전에 국가복귀를 해야겠습니다. 이번만큼은 내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120% 응원할 것입니다.”라고 격려해주셨다.



이후 섭리 기관별 전략 발표가 진행됐다.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참어머님을 모시는 인생의 황금기에 모심, 본질, 충절, 실적 등 4가지 시대인식을 제시하며, 집단지성과 경제적 투명성, 효율적 조직력에 기반한 세계본부 운영을 통해 실질적 전도보고를 생활화하여 신통일한국 완수를 기필코 승리할 것을 결의했다.

양창식 UPF 세계의장은 “남한의 1/2이라도 복귀하라!”는 참어머님의 간절한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참부모님께서 닦아 나오신 세계적 기반을 한반도에 결집시켜 대외 환경을 구축하고, 100만 통일국민준비위원회를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서 새로 개편된 UPF 산하 조직 소개와 지속 가능한 세계평화 실현과 한반도 통일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이 진행됐다.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은 참어머님께서 천명하신 국가복귀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신령과 진리를 통한 총력전도 △국가복귀를 위한 전 섭리기관의 결집, △가정연합 및 모든 기관 전도 투입, △남북통일을 위한 통일준비국민위원 조직 등 4가지 핵심 키워드를 발표했다. 송광석 협회장은 향후 6개월 동안 협회를 중심으로 비상체제에 들어갈 것을 전하며, 모든 공직자, 식구가 하나가 되어 전도에 총력을 다하자고 전했다. 또한 30~40대 휴먼 청년가정들의 교회 안착, 통일원리 교육 강화, 따뜻한 식구 공동체 회복 등의 세부 전략도 공유하였다.

신한국지도자 효정특별수련, 3일차

효정특별수련 셋째 날은 참부모님의 통일운동에 대한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 특강으로 개회식이 시작됐다.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은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통일의 길’을 주제로 남북통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깊은 정성 속에 섭리를 경륜하시고 계시는 참부모님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을 토대로 감동적인 특강을 전했다. 또한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은 참부모님과 효진님께서 정성들여 닦아 나온 통일 기반의 내용과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정연합과 UPF를 포함한 전체 섭리 기관이 하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통일운동 특강 이후 신한국 협회 중앙강사들의 모범 강의가 진행됐다. 폭발적 교회성장과 천일국 백성 양육을 위한 전도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핵심사항으로 부상하고 있기에 신한국 협회는 이번 수련을 계기로 전국 목회자들에게 모범강의를 제시했다. 이날 협회 중앙강사들은 주제별, 대상별로 맞춤형 콘텐츠 및 강의를 제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조성수 강사의 통일운동, 조육현 강사의 VIP 원리강의, 이승일 강사의 창조원리를 중심한 원리강의에 대하여 모범강의가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하늘부모님을 향한 참여머님의 깊은 사랑과 정성이 깃든 천원궁 천일성전 순례와 결의문을 작성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신한국지도자 효정특별수련, 4일차

효정특별수련 넷째 날 행사가 ‘비전 2025 신통일한국 국가복귀 승리를 위한 신한국 전도출정예배’(이하 출정예배)로 뜨겁게 거행됐다. 이날 출정예배는 신한국 전국 교회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출정예배는 김동연 신한국 부협회장의 사회로 영상시청(참부모님 말씀), 효정묵상, 경배, 가정맹세, 보고기도, 효정찬양,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의 격려사, 양창식 UPF 세계의장의 축사, YSP 특별공연,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의 말씀 및 축도, 통일의 노래, 효정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출정예배 이후, 신한국 지도자와 목회자 부부는 천심원에서 새출발을 위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천운을 상속받기 위한 경배 정성을 올렸다. 그리고 참여머님께서 천명하신 국가복귀, 비전 2025 승리를 위해 현장에 서 전도 배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뜨거운 성령의 불, 사랑의 불, 전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간구하며, 벽찬 희망과 은혜를 갖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하늘부모님성회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및 UPF 주요 기관장 취임식

격려사

문연아 총재비서실 제1실 비서실장



존경하는 신한국가정연합, 천주평화연합(UPF), 그리고 주요 섭리기관
의 지도자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전 세계 지도자 여려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여머님께서는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 이후 조직을 개편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많은 내용에 대해서 2025년까지 새롭게, 진실로 눈에 보이는
실적을 가지고 하늘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양창식 UPF 세계의장,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을 세우시어 새
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최근 참여머님께서는 “먼저 무언가를 내어주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는다면 그것이 하늘 앞에 조건이 되어 하늘
은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더 큰 은
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준비해주신
의인을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
난날 참여머님께서는 “어떤 일을 앞두고 된다 안된다 걱정
하지 말고, 했느냐 안 했느냐를 걱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
셨습니다.

새로운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로운 미션을 받은 이때, 우리
는 모두 어떠한 일을 놓고 정말 이게 될까 안 될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고민하지 말고, 하늘을 중심 삼고 참여머님의 심정
을 중심 삼고 천심원을 중심 삼고 서로서로 힘을 합쳐 출발
한다면 2025년까지 하늘부모님, 참부모님께서 그토록 바라
시는 국가복귀 그리고 세계복귀의 길이 열릴 것이라 저는 확
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 출발을 하는 이 시간 더욱더 성장하고 발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정원주 총재비서실 제2실 비서실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신한국가정연
합, 천주평화연합(UPF), 그리고 주요
섭리기관의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
다. 또한 현재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
고 계신 전 세계 지도자 여러분과 축복
가정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여머님께서는 성탄 80주년 기념 및 산수연 행사와 천원
궁 천일성전 봉헌식을 승리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하셨습니다.

참여머님께서는 신통일한국, 나아가 신통일세계를 위해
매일같이 조회를 주관하시며 새 출발을 위한 섭리를 진행하
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가운데 새 출발을 위해 총재비서실
을 강화하시며 문연아 제1 비서실장과 정원주 제2 비서실장
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1·2 비서실은 정부의 내무부
와 외무부와 같은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 효정문화원에는 문훈숙 단장을
세우시어 천일국 시대의 문화를 개발하고, 가정연합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고 명하셨습니다. 또
한 참여머님께서는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양창식 UPF
세계의장, 그리고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을 새롭게 세워 주
셨습니다.

사랑하는 천일국의 지도자 여러분, 빠르게 진행되는 섭리
에 발맞춰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새 시대, 새 역사, 섭리의 조국, 하늘부모님의 조국으로
우뚝 서야 할 한국을 중심하고 국가복귀를 위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할 이 때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신령과 진리로 전도를 승리하고 신통일한국
국가복귀를 승리하는 참효자, 효녀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
자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임사

양창식 천주평화연합(UPF) 세계의장



먼저 오늘 이 자리에 서도록 명하신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천지인참부모 성탄 80주년 축승회 이후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송용천 가

정연합 세계회장과 저를 부르시어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과 더불어 지도자 여러분과 식구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 남북통일의 성업을 달성하라는 천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는 본래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잘나서 12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던 때에 배와 그물을 버리고 두말없이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온 자로써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참부모님 양위분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시대에 부름을 받고, 축복을 받아, 미션을 수행하는 천일국의 사도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부모님이 이 땅에 재세하시는 한세기, 백년동안에 태어나 살다 죽는 사람이 수십억입니다. 그 가운데 어찌된 연유인지 하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부름을 받고 재림메시아 참부모님 양위분의 직접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통일은 우리 교단이 창설될 때부터 그 이름에 있을 정도로 우리 운동의 핵심이며 우리 조국의 운명이요 가인·아벨 갈등의 세계적 결산입니다. 더 나아가 하늘섭리의 완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참부모님을 모시고 비전 2025에 사생결단 전력투구 다하는 천일국의 용사들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취임사

송광석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신한국 협회장



안녕하십니까. 신한국 협회장으로 명을 받은 송광석입니다.

지난 천력 3월 18일(양 5.7) 참어머님께서는 지극정성의 기대 위에 하늘부모님을 모실 천원궁 천일성전을 봉헌하시고, 이후 주요 지도자들을 천

정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참어머님께서는 “천원궁에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입궁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적 기반이 하늘부모님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며 조직 개편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정연합에 송용천 세계회장을 UPF에 양창식 세계의장을 세우시면서, 송광석과 함께 한국 국가복귀,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는 천명을 주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천일성전이 봉헌되었지만 하늘부모님께서 마음대로 운행하실 수 있는 환경권이 되려면, 이 나라 5천만 백성이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천일국 백성으로 입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와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미션은 일생을 바쳐 남북통일의 초석을 닦고, 세계평화의 길을 열어주신 참부모님의 업적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증명하는 일입니다. 신한국 협회는 참부모님의 천명을 받들어 향후 6개월 동안 식구 배가와 함께 남북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통일운동의 기반을 준비해 나가는 동시에, 천일성전 입궁식이 거행될 2025년까지 천일국 백성을 배가함으로써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승리적 기대 위에 모실 수 있는 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식구님들도 초창기의 정신으로 돌아가 모두가 신발 끈을 다시 매고 국가복귀 남북통일의 천명을 이루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림절 63주년 기념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집회

모림절 63주년 기념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집회가 천일국 11년 천력 4월 4일(양 5.23) 부산가정교회 대성전에서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 이기성 천심원장, 가정연합 지도자 및 섭리기관장, 부산대교회 공직자, 중심식구 등 500여 명이 가득 운집한 가운데 거행됐다.

참부모님 말씀

참어머님께서는 이날 말씀을 통해 “하늘은 이제나 저제나 당신의 사정을 알아서 인류를 품을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참부모의 탄생을 기다려 나오셨습니다.”라고 전제하신 후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한 예수의 탄생과 기독교의 역사로부터 한민족을 통한 독생녀의 탄생, 1960년 참부모의 탄생 그리고 축복의 역사와 섭리 역사를 설명하셨다. 이어 “창조의 원칙은 2천 년 전에 하늘이 타락한 인류 가운데 독생자를 탄생시켰고, 6천년 만에 기독교 환경권에서 독생녀를 탄생시켰는데, 그 독생녀가 성장하여 하늘섭리를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독교의 환경권을 넓혀 나오는데 전력투구 했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는 참부모에 의해서 새 시대, 새 섭리 역사가 선



포되었습니다. 기원절, 천일국이 선포되었고 천일국이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적어도 7개 종단, 7개국, 대륙을 복귀했다 하는 대륙을 축복했다 하는 조건, 결과를 세운 자리에서만 가능했습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끝으로 참여머님께서는 “내가 10년 전부터 천원궁 천일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형태로 시작한다 했습니다. 영구적인 창조주, 하늘부모님이 어떻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섭리역사를 하셨는가를 6천년의 하늘섭리 역사를 한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게 최고의 명장들로 인해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시며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리는 여러분 모두가 후대의 여러분 자손 앞에 자랑스러운 이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조상, 부모였다고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고 축원하셨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기식 신한국 가정연합 부협회장의 사회로 식전공연, 개회선언, 보고기도(이기성 천심원장), 인사말(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 꽃다발 봉정, 케이크 커팅, 참부모님 말씀, 효정간증, 효정공연, 억만세,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국가복귀입니다. 이 목표를 완성할 방법 또한 명확합니다. 전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참여머님과 하나가 되어 함께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은 “한국협회는 다가올 남북통일시대를 준비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반드시 고지를 탈환해야 합니다. 비전 2027 승리와 국가복귀의 책임을 다하여 제60회 하늘부모님의 날 신통일국가, 신통일세계 안착을 이루는데 모두가 나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라고 전했다.

이후 전체행사는 효정의 결의를 담은 문화공연과 효정증거, 결의문 제창, 세계지도자들의 국가복귀 승리결의를 담은 억만세 삼창을 끝으로 성료했다.

모림절은 참여머님께서 (양) 2021년 5월 23일 특별히 부산을 방문하시어 축복해 주심을 기념해, 그해 신한국 제5지구 신경상국 부산 이전 감사 예배(양 7.18)때 기념일로 발표됐다. 이로써 모림절은 참여머님 6.25동란 흥남감옥 피난 후 1951년 1월 27일 부산 초량역에 도착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림절과 함께 부산교회 기념일이 됐다.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초청 국가복귀를 위한 1·2지구 공직자 결의 및 파송식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초청 국가복귀를 위한 1·2 지구 공직자 결의 및 파송식이 천일국 11년 천력 4월 13일(양 6.1) 천정궁 연회실에서 문연아 총재비서실 제1비서실장, 정원주 총재비서실 제2비서실장, 송용천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세계회장, 양창식 UPF 세계의장,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 이기성 천심원장을 비롯하여 1·2지구 공직자와 YSP 청년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참어머님께서는 이날 말씀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이루고 나타내야 하는 섭리를 놓고 하늘부모님 앞에 독생녀 참어머니로서 지상에 자녀들과 함께 하늘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환경권을 넓혀서 편안히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했는데, 천원궁 천일성전은 봉헌했지만, 참부모가 바랐던 하늘부모님이 운행 하셔야 할 조국의 현실은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라고 전제하신 후 “결론은 단 한가지입니다. 하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는 것은 전도입니다.”라고 강조하셨다.

나아가 참어머님께서는 “축복가정으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놓고 볼 때,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입니다. 내가 있는 동안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황금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의 태도 가지고는 안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24시간 뜬 눈으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며 “이제 천원궁을 봉헌하고 승리적인 입궁식을 봉헌해야 될 2025년 국가복귀가 됐다는 승리적 보고를 하늘 앞에 할 수 있도록 죽기를 각오하고 해내야 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늘 앞에 효자·효녀·충신의 도리를 다했다 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당부하셨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진행되었으며, 1부는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꽃다발 봉정, 예물봉정, 정원주 제2 비서실장의 훈독, 참여머님 말씀, 보고기도, 효정문화공연 및 결의보고(1·2지구 공직자, YSP 청년교회장), 억만세 삼창으로 이어졌으며, 2부는 승리제의, 오찬, 효정간증, 기념촬영, 폐회선언 등으로 진행됐다.

참여머님께서 등단하신 이후 1·2지구를 대표한 주진태 신한국 공동회장과 황보국 신한국 공동회장이 참여머님께 꽃다발을 봉정했고, 신한국 5개지구 공동회장이 예물을 봉정해 올렸다.

이어 정원주 제2 비서실장은 훈독을 통해 지난 3·4지구 공직자 결의 및 파송식에서 참여머님께서 주신 말씀이 대독됐다.

이기식 신한국 부협회장은 보고기도를 통해 “피는 하늘을 위하여 눈물은 땅을 위하여 일평생을 감내하시며 입안이 헐고 손발이 붓고 눈을 뜰 수 없으시며 육체에 무리가 되는 길을 홀로 걸어 나오신 참여머님의 오직 하늘부모님을 위한 간절한 심정이 이 시간을 빌어 상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간구했으며, 신한국 1·2지구 공직자 및 YSP 청년교회장은 참여머님께 효정문화공연을 통해 새 출발을 위한 승리를 다짐하며 섭리의 발걸음에 사생결단, 전력투구할 것을 결의했다.

2부 오찬에 앞서 김동연 신한국 부협회장의 승리 제의가 진행되었으며, 이후 전체를 대표하여 1·2지구 신한국 공동회장 및 청년 교회장과 YSP 청년공직자가 효정보고를 통해 참여머님께 감사와 결의 올리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전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다 같이 합창하며 신통일한국 승리를 향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이날 전체 행사는 참여머님께서 신한국 1·2지구 공직자들에게 격려와 사랑으로 승리의 기운을 잔뜩 북돋아 주시며 성료됐다.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초청 국가복귀를 위한 3·4지구 공직자 결의 및 파송식

참부모님께서는 성탄 80주년·천원궁천일성전 승리봉헌의 기대 위에 새로운 섭리를 경륜하시며 전도를 통한 국가 복귀의 총진군을 명하셨다. 그리고 지난 양력 5월 23일 모림절 63주년을 맞아 가정연합 식구들에게 천운을 상속해 주셨다. 이후 참여머님께서는 해양섭리의 중심인 여수를 방문하시어 낚시 정성의 기반 위에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초청 국가복귀를 위한 3·4 지구 공직자 결의 및 파송식을 천일국 11년 천력 4월 9일~10일(양 5. 28~29) 양일에 걸쳐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거행하셨다.

이날 행사에는 문연아 총재비서실 제1 비서실장, 정원주 총재비서실 제2 비서실장,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양창식 UPF 세계회장,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 이기성 천심원장을 비롯하여 천일국 지도자, 3·4지구 공직자와 YSP 청년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째 날 행사는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의 사회로 만찬과 더불어 개회선언, 예물 및 꽃다발 봉정(유경득 3지구 회장 부부, 이상재 4지구 회장 부부, 정우철 해양제주 대교구장 부부, 조육현 부회장, 이동하 대교구장) 참부모님 말씀, 특별문화공연,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머님께서는 등단하신 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명과 참부모의 사명에 대한 섭리역사를 설명하셨다. 이어 “하늘부모님의 꿈, 예수님의 꿈은 지상에서 참부모를 통한 타락한 인류를 품고 살고 싶으신 것이기에 통일교 가정연합은 강하게 자신 있게 두려워 말고 나가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셨다.





둘째 날 행사는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의 사회로 영상시청(모림절 말씀), YSP 청년교회장의 찬양, 참부모님 말씀, 효정문화공연, 결의문 제창(유경득 신한국 3지구 공동회장, 이상재 신한국 4지구 공동회장, 양권일 YSP 3지구 회장, 정국진 YSP 4지구 회장), 기념촬영, 역만세 삼창,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참어머님께서는 이날 말씀을 통해 창조주이신 하늘부모님, 해방해 드려야 할 하늘부모님, 독생녀 탄생, 참부모의 길, 천일국 선포, 참된 자녀의 길, 인류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설명하셨다.

이어 참어머님께서는 “6천년의 인류 역사를 놓고 하늘부모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오직 하늘부모님 앞에 참부모님 앞에 모두가 축복가정으로서의 본을 보여, 하늘부모님의 조국, 국가복귀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신통일한국으로 가는 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참부모 독생녀가 지상에 있는 동안 해결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셨다. 나아가 참어머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은 나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늘부모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참부모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효자, 효녀, 충신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축원하셨다.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은 “오직 나라의 독립을 위해 죽음을 무릅쓴 안중근 의사의 심정과 같이, 조국 독립에 큰 뜻을 이루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윤봉길 의사의 굳센 각오 같이 순국선열들의 깊은 결의를 닮아 하늘부모님의 조국, 신통일한국을 향해 3·4지구는 물론 가정연합 전체가 하나가 되어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기필코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꿈인 국가복귀의 발판이 될 전도실적 승리를 실질적으로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역만세 삼창으로 전체 일정을 마무리했다. 

참부모님 특별화보





HJ모나용평 창립 50주년 기념식

(주)HJ매그놀리아용평호텔앤리조트(이하 HJ모나용평)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천일국 11년 천력 4월 24일(양 6.12) HJ모나용평 웰니스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HJ모나용평에서 ‘모나(MONA)’는 대자연을 뜻하는 영어 Mother Nature의 앞 두 글자로 만든 단어로 ‘모두와 나의 행복 가치 실현’이라는 기업의 이념을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가정연합 섭리기관장 및 기업체장,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군의회 의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이범연 강원도 보건체육특보 등 250여 명의 내외빈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과 권성동 국회의원, 유상범 국회의원 등은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전했다.

‘모나 용평의 꿈, 벅차오르는 미래 100년’을 주제로 열린 행사는 오프닝 공연, 창립기념 영상, 개식선언, 축사, 축전영상, 감사패 전달, 비전선포, 떡케이크 커팅식, 축하말씀, 축하공연, 기념촬영,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신달순 HJ모나용평 대표이사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100년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을 다지기 위해 글로벌 리딩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구축하고 새로운 BI인 ‘HJ모나용평’을 선포하며, 품격 있는 개발 / 감격의 콘텐츠 / 파격적인 신사업 / 자격 있는 100년 기업으로 사업의 격을 높여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이엔드 콘도 개발 ▲전국 체인망 구축 ▲해외 리조트 개발 ▲자연관광형 콘텐츠 확충 ▲문화 예술 체험 관광 확대 ▲의료 관광 플랫폼 구축 ▲웰빙 식품 PB 상품 사업 확대 ▲ESG 경영 강화 ▲인재 육성 교육사업 실행 등 세부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2033년 내 매출 1조 달성, 신사업 50% 돌파, 분양매출 총 5조, 운영 매출 연평균 15%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나아가 신달순 대표이사는 “지난 50년의 열정과 노력을 바탕으로 벅차오르는 미래 100년을 향해 임직원들과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대한민국 최초로 현대식 스키장을 오픈한 HJ모나용평은 그간 가족 중심의 레저문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건전한 여가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다. 또한 겨울연가, 도깨비 등 한류문화의 초석을 만들었으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발왕산 명산화 사업을 통한 다양한 문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글로벌 리조트로 도약하고 있다.

참부모님 말씀

창립 50주년을 맞아 100년을 향해 도약하는 HJ모나용평의 앞날을 축하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일그룹과 가정연합은 창조주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애천, 애인, 애국을 교훈 삼아 그 중심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난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모셔야 할 분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는 우리의 하늘부모님이십니다.

본래 창조주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1남 1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성장기간이라는 시간을 주시어 완성의 자리까지 나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창조주와 관계없는 타락한 인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인류입니다.

하늘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인간 가운데 승리했다고 하는 참부모가 나와서 타락한 인류를 모두 하늘부모님의 자녀로 입적시키고 본연의 창조이상을 지상에 이루어나가는 지상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천일국 11년,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건립되었습니다. 기적적인 이 한 날을 맞이하기까지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정들이 있었으나 하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 민족은 인류의 참부모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나온 선민입니다. 선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오늘이 되어야만 앞으로 영원한 건강한 미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하늘부모님이 운행하시는 이 나라가 되어 세계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묶는데 있어서 그 중심 사명을 해야 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강원도, 이 지역에 귀빈들이 앞장서서 본래 창조주의 창조이상을 실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강원도, 아름다운 경기도,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HJ모나용평은 참부모님께서 선택하시고, 정성 들이시고, 직접 축복하신 곳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자연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적 가치를 갖게 됩니다. 모나파크, 그 이름 그대로의 의미처럼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이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프리미엄 리조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석병 통일재단 이사장



HJ모나용평 설립 당시(1973년) 국내총생산(GDP)은 138억 달러로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는 미래를 예측했고, 2003년 문선명·한학자 총재 양위분께서는 이곳을 인수하셨습니다. 오늘날의 HJ모나용평은 그분들의 해안과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씨앗을 뿌리고 지난 50년간 국가 번영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100년을 바라보는 HJ모나용평은 가정연합의 주력사업으로 미래 가치를 담아 세계인이 오고 싶어 하는 힐링의 공간으로 발전할 것을 확신합니다.

심재국 평창군수



HJ모나용평은 1975년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개장한 국내 최초의 스키장으로 동계아시안게임과 평창동계올림픽 등 여러 국제 경기를 성황리에 개최한 곳입니다. HJ모나용평은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완벽한 사계절 종합 레저 휴양리조트로서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적 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발전을 위해 성실, 근면, 협동정신으로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심헌정 평창군의회 의장



HJ모나용평의 창립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J모나용평이 레저스포츠의 중심 기업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큰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달순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 전체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리조트 발전은 물론 강원도 평창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HJ모나용평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가는 선구자적 면모를 지닌 리조트입니다. HJ모나용평은 2018 동계올림픽은 물론 겨울연가, 도깨비 등 K드라마를 세계에 알린 한류 열풍이 시작된 곳으로써 강원도와 함께 한 지난 50년간 수많은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HJ모나용평이라는 새 이름과 새로운 리더십 체제를 맞아 제2의 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유상범 국회의원



평창의 국회의원으로서 HJ모나용평에 갖고 있는 애정이 각별합니다. HJ모나용평은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역사의 산실이자 자타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동계스포츠 메카입니다. 1999년 동계아시안게임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물론 매년 빠짐없이 열리는 스키, 스노보드 등 수많은 국내 대회를 성공리에 치러내며,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나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역관광 산업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350만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상과 함께 100주년까지 승승장구하는 HJ모나용평이 되길 바랍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HJ모나용평은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리조트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발왕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자연친화적인 시설, 수준 높은 서비스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 강원도의 대표기업으로 휴양과 레저를 즐기는 공간을 넘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곳은 물론, K드라마 한류의 발원지이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지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Human And Joy, Mother And Nature 용평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며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용평리조트 창립 50주년 기념식

HJ 모나 용평의 꿈, 벅차오르는 미래 100년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천일국 지도자 특별집회

참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천일국 지도자 특별집회’가 천일국 11년 천력 3월 20일(양 5.9) 천정궁에서 문연아 신한국 UPF 의장, 정원주 비서실장, 천일국 지도자 및 기관기업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특별집회는 한학자 천지인참부모 성탄 80주년 기념 축승회 이후 전체적인 행사를 승리적으로 마무리 짓고 천일국 지도자들이 전 세계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참어머님을 모시고 새 출발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참어머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참아버님 천주성화 이후 천원궁 천일성전이 봉헌되기까지 실제적인 국가복귀, 하늘부모님께서 지상에 섭리하실 수 있는 환경권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시며, 뚜렷한 방향과 ‘새 출발’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가정연합의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하셨다. 이번 조직개편은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봉헌의 기반 위에서 본격적인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를 열어가기 위함이다.

이날 참어머님께서는 가장 먼저 가정연합 식구들이 초창기의 심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늘 대한 심정과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천심원과 하나되어 신령과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고 설명하셨다. 이를 위해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을 세워주심으로써 가정연합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전략을 통해 신통일한국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침을 주셨다. 또한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을 세워주심으로써 세계 194개국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기반을 세워 하늘부모님의 이상과 참부모님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참어머님께서는 양창식 천주평화연





합(UPF) 세계의장을 임명하심으로써 UPF 산하 6개 기둥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활동들을 강화하여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소원인 평화이상세계와 하늘부모님 아래 한 가정의 이상이 실현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다. 동시에 참여머님께서는 총재비서실을 1실과 2실로 세워서 중심으로 총재비서실의 역할을 강화하셨다. 제1비서실에는 참가정의 문연아님을 제2비서실에는 정원주 총재비서실장을 비서실장으로 세우심으로 가정연합 산하 전체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 보고와 함께 근접 지원을 통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다지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여머님께서는 미래인재양성과 1세 2세 3세의 신앙·심정교육을 위해 글로벌 전문 연구기관인 효정문화원에는 참가정의 문훈숙님을 임명하셨다.

이날 행사는 방승만 세계본부 선교처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꽃다발 봉정(토마스 월시 UPF 세계회장, 김종관 HJ글로벌 재단 이사장, 김재현 YSP 세계부회장, 박수홍 YSP 단장), 예물봉정(양창식 신중남미 천의원장, 김상석 신중미 회장), 보고기도, 참부모님 말씀, 승리제의, 조찬, 소감발표, 역만세 삼창,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훈 신미국 천의원장의 보고기도를 통해 “천일국 특별집회를 통해 다시한번 실체성령 독생녀참여머님을 중심 삼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과 신앙으로 전진하여 기필코 신통일한국의 실현을 하늘부모님 앞에 참여머님을 중심 삼고 봉헌해 드릴 것을 다짐하옵나이다.”라고 간구했다.

이후 문연아 신한국 UPF 의장의 승리 제의로 조찬이 시작되었고, 참석자 전체를 대표하여 천일국지도자들의 소감발표 시간이 마련됐다.

마이클 켄킨스 신미국 UPF 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또다시 저희는 평화의 어머니 없이는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없음을 느꼈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 실제로 거하실 수 있는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을 위해 무한한 사랑과 정성의 기반을 닦아 나오신 참여머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데미안 던클리 신아시아·태평양 1 대륙회장은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밤잠을 못 이루시고 정성의 기반으로 오늘날까지 준비해 나오신 참여머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노래를 올리겠습니다.”며 소감발표를 노래로 갈음했다.

마이클 발콤 신유럽 대륙회장은 “참여머님께서는 태초의 하늘부모님께서 이상하셨던 바를 참부모님의 생애를 통해 교육하고자 천원궁 천일성전을 건립하셨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천원궁 천일성전을 방문함으로써 오늘날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이 종식되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실질적인 뜻이 이 땅 위에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전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동우 남미 대륙회장은 “섭리의 길을 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되뇌이는 참부모님의 말씀은 ‘죽지만 말고 떨어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참여머님의 말씀과, ‘너희가 참부모를 사랑한다면 보여다오’라는 참여머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든 2027년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를 만들 수 있는 실체적인 기반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남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김상석 중미 대륙회장은 “예상치 못한 호우주의보로 살이 애이는 쌀쌀한 날씨와 강풍에도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식이 승리적으로 준비되면서 그동안 참여머님께서 얼마나 하늘부모님을 위한 정성과 수고의 시간을 걸어오셨는가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머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일정에 더욱더 힘을 내서 전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바카리 카마라 아프리카 천의원장은 “참여머님, 오직 참여머님의 비전과 사랑만이 이 세상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하늘부모님의 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방상일 신일본 대륙회장은 “작년, 신일본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참여머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산모가 옥동자를 탄생시키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일본은 참여머님 말씀에 따라 신통일한국·신통일세계 안착의 그날까지 역사에도 없는 가장 큰 옥동자의 탄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오직 참여머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고 다짐했다.

오오즈카 가즈미 신유럽 천의원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코소보 수상이 참석하고자 하는 데 가정연합과 일본의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 가지 고려되는 사항이 있었지만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정성으로 무사히 코소보 수상이 참석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늘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은혜 속에 천복 받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번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참여머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신동모 신남미 UPF 회장은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식이 진행되던 날, 바람을 가르며 천원궁 건물 앞에 플래카드 4개가 걸렸습니다. 천원궁천일성전지완성, 천주천지부모안착완성, 전지사생결단전력투구, 신세계안착신천주개문이라는 글자를 통해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금 허리띠를 동여매고 진군하라는 참여머님의 간절한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신남미는 신통일한국을 위해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합니다.”고 말했다.

양창식 신중남미 천의원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UN 평화대학원 프란시스코 로하스 총장은 물론 도미니카 공화국 기독교사회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참여머님께 올린 감사와 경외의 소감문을 통해 소감발표를 갈음했다. 나아가 양창식 천의원장은 “우리 모두 참여머님을 모시고 뜻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지치거나 떨어져서 쓰러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뜻을 위해 전진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체 행사는 김동연 YSP 회장과 다케우치 히로야키 신일본 대륙 부회장 선창의 억만세 삼창을 끝으로 성료됐다. 



HJ크루즈&HJ마리나 승선식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효정연 특별오찬

HJ크루즈&HJ마리나 승선식이 천일국 11년 천력 3월 29일(양 5.18) HJ크루즈&HJ마리나에서 참부모님을 모시고 천일국 지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승선식에 앞서 참어머님께서는 HJ마리나 베이커리&카페에 대한 특별보고를 받으시고 HJ마리나 라운딩을 진행하셨다. 이후 행사는 개회선언, 꽃다발 봉정, 효정문화공연, 폐회선언으로 진행됐다.

한편 HJ크루즈는 정식 운항을 준비중이며, HJ마리나 선착장을 출발해 청평호 인근을 왕복하는 1시간 코스와 남이섬과 자라섬을 관람하고 돌아오는 왕복 3시간 코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천지인참부모님 초청 효정연 특별오찬이 이어졌다. 이날 특별오찬은 이기성 천심원장의 대표기도, 방상일 신일본 대륙회장의 승리제의, 특별오찬, 이성만 HJ동산(화조원) 위원장의 축시, 효정간증, 효정문화공연, 폐회선언으로 진행됐다.

참어머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늘부모님을 지상에서 모시고 사는 축복가정들의 책임, 적어도 국가적인 기반이 하늘부모님의 영향권이 돼야 합니다. 하늘부모님이 마음대로 운행하실 수 있는 환경권. 다시 말해서 이 나라 5천만 백성이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시며 “참부모에 의해서 축복받은 축복가정, 천일국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개인이 전도해야 됩니다. 자나 깨나 전도. 우리의 목표는 국가복귀. 전도, 전도, 전도입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들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입니다.”라고 축복하셨다. 나아가 참어머님께서는 “2세, 3세를 찾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늘부모님의 본질, 참부모의 사명이 무엇이었는데 그것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천심원 섭리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체험해야 됩니다.”고 말씀하시며 앞으로 가정연합은 초창기의 심정으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 전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세계순회(신유럽)

참어머님께서 지난 (양)5월 9일 조직개편 및 인사 단행의 핵심사항으로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에게 194개국 세계순회를 토대로 가정연합이 실질적으로 세계복귀의 기반이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다. 따라서 이번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의 세계순회는 참어머님의 특별지시에 따른 가정연합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그리고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는다.

1차 알바니아

‘송용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회장 세계순회’가 천일국 11년 천력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양 6.16~17) 신유럽 알바니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알바니아 티라나 공항에 도착한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제일 먼저 마이크 발코 회장과 미울라 알바니아 협회장을 만나 알바니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알바니아 전도 센터와 2019년 참어머님께서 하사해 주신 자금과 유럽식구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평화대사관을 방문했다.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평화대사관에 위치한 정성실(천심원)을 방문하여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경배를 올린 후 “신통일세계 안착을 놓고 정성에 정성을 투입하시는 참어머님을 중심으로 유럽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되어 참어머님께서 세우신 이곳에서 유럽의 미래를 이끌어갈 2세들을 찾아 세우고 교육하여 반드시 유럽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올바른 서기를, 새로운 유럽, 위대한 유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다.





평화대사관은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 중심부에 위치한 7층 건물로써 교통시설과 넉넉한 주차 공간, 크고 작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후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평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모델>이라는 주제로 열린 평화대사 초청 행사에 참석하여 “참어머님께서도 지금도 알바니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알바니아가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고 전제한 뒤 “참어머님의 평화활동은 알바니아 UPF를 중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교육되어 알바니아가 발칸반도를 포함하여 유럽 전체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각계 지도자 및 지역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 마이클 발콤 회장의 환영사, 축하공연, 알바니아 UPF 회장의 환영사,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의 특별메시지, 축하공연, 평화강의-평화대사 임명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튿날 아침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알바니아 물렛 수련소를 방문하여 참어머님이 바라시는 천일국의 미래인재양성에 대한 뜻을 전했다. 이어 알프레드 모이시우 대통령실을 찾아가 참어머님의 비전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YSP 특별집회에 참석해 ‘2세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1세들의 가르침이 잘 상속되어야 한다.’는 참어머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함께 간 마츠다 코지 YSP 세계회장을 소개했다. 이후 2세권 지도자 및 청년 협회장들을 만나 “신유럽과 신알바니아는 참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신통일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천일국 미래 지도자 나아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알바니아는 최근 경제적 기반을 이룬 루마니아(정보문 전 협회장)를 모델로 신기영 국가메시아 회장 중심 경제 자립 기반과 전도환경 강화를 위한 방법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차 독일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곧바로 신유럽 지도자 총회를 위해 천일국 11년 천력 5월 1일(양6. 18) 독일로 출발했다. 독일에 도착한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오전 일찍 캄베르크 수련소에 방문하여 성일예배 및 제61회 참만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천원궁 천일성전 봉헌의 섭리적 의미와 금번 순회의 목적에 대해 전했다. 사라 아미드 중동 부대륙회장을 비롯하여 디터 슈미트 중앙 유럽 지구장과 2세권 협회장 및 공직자들은 참여머님의 유럽을 향한 절실한 심정과 격려의 가르침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이후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오오츠카 신유럽 천의원장과 마이크 발콧 신유럽 대륙회장 이하 6개 지구장과의 전략발표 시간을 통해 신유럽 71개 국가 중 선교기반을 가진 55개국 121개 교회를 중심으로 기관 공직 현황, 식구 재적인원 및 예배 참석인원, 교회 규모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며 참여머님께서 최근 주신 말씀을 중심한 단기별 정책과 운영원칙을 바탕으로 신유럽 가정연합, UPF, 여성연합, YSP 4개 기관이 보다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제적 자립 방안과 희망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인표 분원장을 중심으로 천심원 기도회는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과 유럽 지도자들과 함께 뜨거운 정성 속에 참여머님께 감사를 올리며 독일에서의 전체일정을 성료했다. 





3차 영국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독일 일정을 마치고 신유럽 본부가 있는 영국 런던으로 이동하여 가장 먼저 UPF 초청 평화대사 모임을 통해 코로나 시국에도 중단 없는 전진으로 영국 UPF 활동을 해온 지도자들의 보고 받으며 참석한 평화대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YSP 청년지도자 특별집회가 영국 중심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집회는 마이크 발콤 신유럽 대륙회장의 환영사 이후 마즈다 코지 YSP 세계 회장의 특별보고가 진행됐다. 마즈다 코지 YSP 세계회장은 참여머님께서 신유럽에 주신 비전과 방침 특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라 하신 말씀을 전했다.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은 세계본부와 신유럽이 가야 할 전략적 방향과 단기별 목표, 운영방침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후 식구모임과 YSP 청년 모임을 끝으로 신유럽 순회일정을 마무리했다. 



하늘부모님성회 제61회 참만물의 날 경배식

‘하늘부모님성회 제61회 참만물의 날 경배식’이 천일국 11년 천력 5월 1일 오전 7시(양 6.18) 참가정, 천일국 지도자, 신한국 섭리기관장 및 단체장, 공직자, 목회자, 원로, 축복가정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경배식은 이기식 신한국 부협회장 사회로 참가정(문효진·문연아가정, 문흥진·문훈숙 가정)의 성초점화, 개회선언, 천일국가 제창, 대표자 경배, 가정맹세, 이기성 천심원장의 보고기도, 영상 상영, 케이크 커팅, 축가, 김석진 천승대교회장의 말씀훈독,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의 말씀 및 축도, 박노희 신통일한국국민연합 원로회 회장의 억만세 삼창,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경배의식은 참가정과 전 세계 7개 대륙을 대표한 대표자 경배에 이어 영·육계 축복가정 대표자 경배로 이어졌다.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은 기념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종교지도자와 종단들이 있지만 어느 누가 교단 발전을 넘어 인종과 종교의 벽을 허물고 하늘부모님의 평화이상세계와 인류 환경을 먼저 걱정하며 천문학적인 비용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정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독생녀 참어머님만이 인류의 참부모이심을, 인류를 위한 구세주이심을 다시한번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며 “참부모님의 이와 같은 생애와 가르침이 온 인류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가정연합 전체가 실천궁행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경배식 행사는 참석자 전체가 참어머님의 숭고한 사랑과 정성으로 세워진 섭리경륜에 120% 동참할 것을 다짐하며 참어머님께 존귀와 영광으로 올리는 시간으로 성료됐다. 



천원궁 천승교회 공동 당회장 취임식 및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9주년 기념예배

‘천원궁 천승교회 공동 당회장 취임식 및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9주년 기념예배’가 천일국 11년 천력 5월 1일 오전 10시(양 6.18) 천일국 지도자, 신한국 섭리기관장 및 단체장, 목회자, 공직자, 천승교회 축복가정 식구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당회장 취임식 및 기념예배는 이기식 신한국 부협회장 사회로 개회선언, 경배, 천일국가 제창, 가정맹세, 보고기도(양창식 UPF 세계의장, 케이크 커팅(참가정), 격려사(정원주 총재비서실 제2비서실장), 축사(황선조 전 협회장, 신문대학교 총장),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의 취임사 및 기념사, 정년 퇴임자 및 33년·15년 이상 장기근속자 공로패 수여식, 효정찬양, 출정 결의식, 억만세 삼창(조만웅 원로목회자회 회장),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양창식 UPF 세계의장은 보고기도를 통해 “오늘 이 역사적인 기념일을 맞아 천지인삼부모님께서 천명하신 뜻 앞에 부모님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선택받은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다시금 총궐기하는 통일의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다.

황선조 전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참어머님께서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봉헌 이후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이 하늘부모님의 왕권이 이 땅 위에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실질적인 하늘 백성을 찾아야 한다는 천명을 주셨다.”며 “이제 참어머님께서 세워주신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을 중심 삼고 우리가 실현한 행복을 종족과 이웃에게 전승해 가며 하늘 주권을 땅 끝까지 확장하자!”고 전했다.





정원주 제1비서실장은 격려사를 통해 “1년 전 참여머님께서는 천일국 안착 승리 기대 위에 하늘 앞에 승리 봉헌하신 천원궁의 천운을 상속해 주시며 천승교회라는 새 이름을 내려주셨습니다. 두 분(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의 공동 당회장이 참여머님의 뜻을 받들어 신통일한국 복귀는 물론, 사랑과 심정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라고 전하며, 협회 창립 69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다시금 다짐과 결의의 다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주신 천지인참여머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은 말씀을 통해 협회가 창립된 섭리적 이유와 과정을 피력한 후 “협회 창립 69주년을 맞아 비전 2025 국가복귀 기반 조성 완수를 명하신 참여머님의 그 간곡한 심정을 우리 전체가 상속받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 나갔던 초창기 심정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을 기필코 완수하는 자랑스러운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됩시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공로패 시상식에서는 참부모님을 대신하여 참가정의 문연아님과 문훈숙님이 정년퇴임 목회자 10가정과 33년 이상 장기근속 목회자 10가정에게 공로패를 시상했고,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이 15년 이상 장기근속 목회자 및 공직자 12가정에게 공로패를 시상하며 그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취임식 및 창립기념행사는 전체 참석자들의 ‘비전 2025 국가 복귀 승리를 위한 결의문’ 제창과 조만웅 원로목회자 회장의 억만세 삼창으로 성료됐다. 

신미국 대륙회장 이·취임식

신미국 대륙회장 이·취임식이 천일국 11년 천력 4월 9일(양 5.28) 뉴요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양창식 UPF 세계의장, 마이클 젠킨스 UPF 세계회장, 김기훈 신미국 천심원장, 호리 마사이치 신 아시아태평양 회장, 토마스 맥데빗 워싱턴타임즈 회장, 토마스 월시 UTS 총장 등 가정연합 목회자 및 식구 800여 명이 현장 참석하고, 3,000여 명의 식구들이 온라인 생중계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미국 가정연합은 이·취임식을 통해 지난 2년 6개월간 세계 정치의 중심이자 섭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미국 대륙에서 특유의 리더십과 행동력을 보여준 용정식 전임 신미국 대륙회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데미안 던클리 신임 신미국 대륙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용정식 전임 신미국 대륙회장과 니오키미 우시로다 전임 신미국 협회장의 이임사, 데미안 던클리 신임 신미국 대륙회장의 취임사, 김기훈 신미국 천의원장의 환영사,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과 양창식 UPF 세계의장의 축사,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데미안 던클리 신임 신미국 대륙회장은 초창기 교회로 돌아가 신령과 진리로 신미국을 부흥시켜야 한다는 참여머님의 말씀 전달 이후, 참여머님의 사랑이 깃든 선물(12개의 옷)을 신미국 대표자들에게 증명하며 참여머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실질적인 신 미국의 전도 실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남양주대교회 승격 및 용정식 대교회장 취임예배

참부모님께서는 천일국 11년 천력 3월 20일 ((양 5.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신한국 5개 지구본부, 16개 대교구 체제에서 34개 대교회 및 교회 체제로 개편하시며, 그동안 세계본부 신미국 대륙회장으로 시무하던 용정식 회장을 남양주대교회 대교회장(당회장)으로 천명하셨다.

남양주대교회 승격 및 용정식 대교회장 취임예배가 천일국 11년 천력 4월 16일(양 6. 4) 남양주대교회에서 정원 주 총재비서실 제2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송용천 가정연합 세계회장, 양창식 UPF 세계의장,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 등 가정연합 주요 지도자와 남양주대교회 식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취임예배는 개회선언, 보고기도, 찬양, 환영사, 격려사, 축사, 경력보고, 꽃다발 증정, 취임사, 축도,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용정식 남양주대교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참부모님을 모시고 조국광복과 국가복귀 섭리에 마지막 생애를 투입하여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입교 50년의 세월과 선교 33년의 기반을 바탕으로 남양주대교회가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국가복귀를 향한 간절함과 지대한 정성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전도와 부흥에 전력투구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조국을 하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남양주대교회 식구들은 “참부모님과 하나 되면 못 이룰 것이 없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반드시 승리할 것을 결의하는 시간으로 취임예배를 마무리했다. 



피스로드 2023 통일대장정

뉴욕 피스로드 2023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과 천주평화연합(UPF) 등이 연대하는 ‘뉴욕 피스로드 2023 통일대장정’이 천일국 11년 천력 4월 8일(양 5.27) 미국 뉴욕 UN 본부 다그 함마르셀드 광장에서 가정연합 섭리기관(UPF, WFWP, WCLC, YSP, GPA/HUSA, CARP)지도자 및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진을 통해 루빈 모이즈 뉴욕 평화 행진 의장은 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고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기념관 건립을 UN에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루빈 모이즈 의장은 “장차 기념관이 전쟁의 피해를 당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곳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후 스티븐스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IAYSP USA) 회장과 미국성직자 협의회(ACLC) 및 세계기독교성직자협의회(WCLC) 브루스 그로드너 목사와 모이즈 주교 주관 평화행진이 광장을 시작으로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대학원리연구회(CARP) 및 청년학생연합 회원들은 전체 한마음 한뜻으로 청원서에 서명 받기 위한 운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오스트리아 - 헝가리 - 슬로바키아 피스로드 2023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과 천주평화연합(UPF) 등이 연대하는 ‘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 피스로드 2023 통일대장정’이 천일국 11년 천력 4월 15일(양 6.3) 세 나라의 국경 지점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유럽국가, 엘리자베스 쿡 오스트리아 가정연합 회장의 환영사, 하이더 오스트리아 UPF 회장의 개회사, 평화행진,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피스로드는 참부모님 양위분에 의해 1981년 서울에서 열린 세계과학자대회에서 처음으로 주창됐다. 당시 참부모님께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국경을 없애고 길을 통해 서로 활발히 소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오스트리아 - 헝가리 - 슬로바키아 피스로드 2023 조직위원회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쟁 철폐, 지구촌 한 가족화를 이루기 위한 운동을 활발히 펼치며 피스로드 2023 전체 행사를 성황리에 성료했다.



캐나다 피스로드 2023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과 천주평화연합(UPF)이 연대하는 ‘캐나다 피스로드 2023 통일대장정’이 천일국 11년 천력 4월 16일(양 6.4)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의사당에서 몬티 맥노튼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성직자 및 커뮤니티 리더, 평화대사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대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몬티 맥노튼 장관의 축사, 종단 대표 및 평화대사의 찬조연설(진 헨리 기독교 대표 목사, 이맘 캄를 칸슨 이슬람 대표, 쉬리 바그반 샤스트리 힌두교 대표, 얼 스미스 사이언톨로지 교회 회장, 테레사 토랄바 흰 필리핀 페스티벌 창설자, 나다라자 무디 스리랑카 타밀족 회장, 헨리 리 말레이시아 명예영사 및 중국문화센터 대사), 임명장 수여(3명의 커뮤니티 리더), 평화행진, 문화공연(콜롬비아·스시랑카·필리핀 커뮤니티를 대표한 가수) 순으로 진행됐다.

피스로드 조직위원회는 2022년 7월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를 한반도처럼 분단국으로 만들지 말고, 유럽에 새로운 벽을 쌓지 말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피스로드 9주년 기념 베를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UPF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독일통일의 기운을 한반도로 연결하고 한반도의 분단 철조망을 걷어 내자는 의미로 ‘신평화로’라는 명예도로명 제정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현재는 경기도 가평시에만 ‘신평화로’가 제정돼 있으나, 이번 ‘2023 통일대장정’을 계기로 신평화로 제정 운동이 더욱 확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송광석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신한국 협회장)은 “한반도 통일은 여야가 따로 없고, 아무리 남북관계가 경색돼도 멈출 수 없는 만큼 참가자들의 통일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이 곧 세계평화의 초석임을 온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에 알려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에 따르면 ‘피스로드 2023 통일대장정’은 이미 이달 초부터 세계 160개국에서 국가별로 일제히 행사에 돌입했다.

피스로드 통일대장정은 지난 2013년 ‘한일 3800km 평화의 자전거 통일대장정’ 이름으로 출발한 이래 2014년 14개국, 2015년 120개국,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25개국, 2018년부터는 130개국이 참석하는 대회로 확대됐다.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160개국, 40만명이 참가해 한반도 통일 열기를 고조시켜 나갈 예정이다. 



강원도 정선 향골계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사)애국지사 문윤국 선생 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정선 향골계곡 콘텐츠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가 천일국 11년 천력 4월 28일(양 6. 16) 정선 농협 대회의실에서 우종춘 애국지사 문윤국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강원대 명예교수)을 비롯하여 이돈섭 대한적십자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회장, 김기철 도의원, 이귀인 민족통일 강원특별자치도 협의회장, 전영록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 협의회 중앙회장, 전학규 정선군산림조합장, 기관단체장 및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제시대 정선 향골에서 26년간 동굴 생활을 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구암 전상요 선생과 정선 노루목에서 한학과 한시를 가르치며 후학을 양성한 금산 문윤국 선생의 삶을 되돌아 보고, 그 삶의 터전이던 향골계곡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문화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학술세미나에서는 세 개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제1주제는 허준구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소장이 ‘금산 문윤국 선생과 구암 전상요 선생의 향골계곡에서의 삶과 그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 했고, 제2주제로 현승욱 강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강원도 너와집과의 비교를 통해 본 문윤국 선생 여생터 가옥의 가치와





복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제3주제는 장재영 송국대학교 산림융합과 교수의 ‘정선 향골계곡 콘텐츠 개발을 통한 산림문화 비즈니스 접근’이란 주제를 마지막으로 주제발표를 마무리하고 우중춘 문윤국 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한 가운데 임응규 정선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소장과 김재홍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대표, 김소연 가톨릭관동대학교 산림치유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각기 세 개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우중춘 이사장은 “강원도 정선에는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고 후학을 가르쳤던 구암 전상요 선생과 금산 윤윤국선생, 계산 우정모 선생이 계셨던 곳이기도 하여 향골은 독립운동을 통해 애국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며 “정선 향골계곡은 산림문화 콘텐츠 및 산림복지 인프라를 연계한 산림문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면 자연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원을 결합한 지역 브랜드화가 가능한 곳입니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앞으로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귀중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선 향골계곡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는 뜻을 밝혔다. 



